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 고테에 창고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는 ‘고테에(鍍繪)’라고 불리는 정교한 회반죽 부조가 장식된 창고가 2 채 있습니다. 고테에는 19세기 중반에 널리 퍼진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미장용 흙손을 사용하여 장인은 축축한 회반죽을 여러 겹으로 덧바르고 다 마르면 채색할 수 있는 입체적인 모양으로 조각합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고테에는, 당시 이 양조장에 자주 방문하던 현지 미장 장인인 가와카미 이키치에 의해 제작된 것입니다.



창고 모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상 창고(이쇼구라)

의상 창고(이쇼구라)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 있는 두 채의 장식적인 창고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것입니다. 1916년에 다양한 가정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창고로 건설되었습니다. 2층 구조의 창고에는 당시로서는 고가의 수입품이었던 강판 사이딩(금속으로 만들어진 외벽 패널재)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문 셔터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신화에 등장하는 거북이 같은 생물이 파도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고테에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인 니타로의 유쾌한 발상이 넘치는 예술적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창고 토대에 있는 돌 타일이 있습니다. 통기용으로 슬라이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닫기 위한 손잡이는 이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사프란주에 착안해 유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테에 창고(고테에구라)

이 2층 구조의 창고는 회반죽으로 만들어진 부조 세공인 고테에를 주로 전시하기 위해 1926년에 지어졌습니다. 지붕의 처마 밑에 요시자와 가문의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쌍용이 그려져 있으며, 계절 화초로 장식된 간지 중 9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문, 봉황과 기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생물이 그려진 4장의 문, 그리고 행운과 상업 번창의 신인 에비스와 다이코쿠텐이 그려진 한 쌍의 여단이문,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과 거북이가 그려진 한 쌍의 미단이문 등 모두 18점의 고테에가 이 창고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의 미장 업자들로부터는 ‘일본 최고의 고테에’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가 창고의 장식을 의뢰할 때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 작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사업 번창을 위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테에는 색이 선명하고 약동감이 있으며, 그려진 생물 중에는 생생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리로 된 눈이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고 자체는 윗부분이 흰색 회반죽, 아랫부분이 검은 평기와로 되어 있으며, 줄눈에 회반죽을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 벽으로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창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겹고 둥근 흰 줄눈이 해삼을 닮았다고 하여 이 건축 양식은 ‘해삼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고테에 릴리프가 창고 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고려하여 창고의 건축 사양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기둥은 고테에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은 닫혀 있는 문도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테에 창고에서는 열린 채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이 문이 닫힌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 때,

가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 전에 고테에를 보호하려고 했던 때 단 한 번 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고테에 창고의 내부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과 요시자와 가문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창고 내부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양조장 투어도 실시하고 있어 더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일본어 이외의 가이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